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1년 12월)

* 서면 제출일 : 2021. 12. 28.(화)

* 총원 15명 중 7명 참여

* 참여 위원 : 김요수, 김유선, 김정희, 류한호, 최영호, 최정욱, 한문철(7명)

*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2021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김요수 위원

<윤근수의 시사본색>(12월 5일)

-3당의 젊은이가 나왔다. 차림표(메뉴판)가 바뀐 느낌이다. 시청자위원회 때문에 일부러 봐야 하는 토론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젊은 정치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공정과 정의의 사전적 뜻만 말하고, 원론적 해석만 하고, 구호에만 머물렀던 옛날의 출연자들과 달랐다.

카메라 앵글도 자주 바뀌던데 혹시 제작진도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했다. 다만 자료 화면이 없기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화면의 다양성은 없었다. 틀어놓고 귀만 쫓긋했고 눈은 다른 곳을 봐도 충분했다. 라디오를 듣는 느낌은 안타까웠다.

텔레비전 포맷의 다양성과 출연진의 다양성은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하고 찾아보게 한다. 소재나 출연진의 새로움을 찾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새 출연진이 또 다른 10년 동안 방송장악을 할 것 같은 느낌(?)은 기우리라.

<뉴스>

-약자를 위한 뉴스가 눈에 많이 띄어서 좋았다. 대학교 출입 때 주차료를 내는 택배기사 뉴스, 아파트 위탁 관리 회사의 보험료 횡령(?) 문제, 외국 서커스단의 부당 대우 뉴스, 약자들은 평상시에도 소외되거나 무시되니까 약자다. 그런 약자를 복지사나 기부 천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특히 언론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줄여줘야 한다.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통령선거도 물론 중요하

지만, 대선에 가려서 이 지역 출마자들은 더 알 수 없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된다.

<리플레이스>

-트렌드를 잘 읽고, 소재를 잘 잡은 프로그램, 우유에 군고구마를 먹으려고 챙겼다가 먹는 걸 깜박 잊고 1편을 봤다. 잘 짜였고, 배울 것도 있고, 이걸 광주MBC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대선후보 관련 내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공약 내용보단 서로의 단점과 흠집을 찾아 서로 공방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두 후보자께서 요즘 뜻하지 않은 복병에 대선후보다운 공약과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듯해서 토론회가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시간이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은 더 많이 그리고 쉽게 다중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보는 동안 답답함이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 김유선 위원

-<뉴스> 장애 학생 폭행 사건, 사회복지요원이 장애 학생 폭행 의혹(12. 23, 24)

이틀에 걸쳐서 복구에 00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사회복지요원에게 몇 개월 동안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인권침해 당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피해자 부모님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보도였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특수학교, 장애 학생이라는 것만으로 지도해서는 안 되는 무자격의 사회복지요원이 자행한 내용을 접하면서 아직도 사회의 인식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던 내용이었다. 또한 모든 것을 단편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학교의 대응이 너무 소홀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웠다.

향후 이 내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 학생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다시 색안경의 인식이 될까 걱정되는 마음도 앞서기도 했다.

□ 김정희 위원

-최근 광주MBC(이하, '우리 방송')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걱정의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첫째 광주MBC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축소 개편 문제와 그에 따른 비정규직 작가들의 처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인사에 관한 비판 기사였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방송 광고가 줄어들고, 방송 및 미디어 환경이 그게 변화였으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우리 방송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장님 이하 경영진의 어려움과 고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의 어려움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10여 년 동안의 계속되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경제난은 최근의 변수가 아니라 최근 10여 년간의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 방송의 프로그램 자체제작과 취재와 보도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광주MBC의 위상을 갖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장님 이하 구성원들의 피나는 헌신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경제난은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지만, 노력하면 버틸 수 있거나 극복도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경제난을 이유로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축소 및 폐지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선장이 배의 닻과 노를 팔아 식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과 같은 전통 있는 지역방송이 자체제작을 포기하고 서울 방송만을 중계한다면, 지역의 목소리는 누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역방송이 지역의 이야기를 포기한다면 지역소멸의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자체제작 및 편성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이 지역과 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덧붙여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지역 유튜브 스테이션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도 사업 다각화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공모하고 그중에 좋은 콘텐츠는 함께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작가와 스태프들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특성상 일시 고용이 불가피하겠지만, 많게는 5~10년 정도 일한 작가와 스태프들은 방송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인사는 사장님의 고유권한이라 제가 첨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

다. 다만, 우리 방송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취재와 보도, 이슈 발굴 및 탐사 보도 기능을 유지·강화 시켜야 하고, 인사도 그 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한 지역 언론 비판을 경허하게 수용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넘지만 시청자위원으로 몇 가지 제언 올렸습니다.

□ 류한호 위원장

<윤근수 시사본색> 여수 어느 직업계 고교생의 죽음 김철원 기자(12.14.)

-2달 전 여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기획 기사로 사안에 대한 다방면의 심층적 접근이 돋보임. 매스미디어의 특성상 이 사건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취재한다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 사건 재발 방지와 건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교육부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함

<오매 전라도>

-<오매 전라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이나 지역민의 관심사, 다른 지역의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 다만 광주문화방송 인터넷 공간에서 보이는 모습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심각하게 낮추는 수준. <오매 전라도>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랫부분에 오매 전라도라고 표시된 4각 박스가 여러 개 보이지만 모두가 먹통임. 날짜별로 바로 가기할 수 있도록 방송날짜를 명기한 방식으로 개선 필요.

-다시 보기는 날짜별로 주요 콘텐츠가 무엇인지 제목만이라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음. TV 속 정보는 어느 날 방송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인지를 목록과 제목에서부터 표시할 필요 있음

□ 최영호 위원

<오매 전라도> 쓰레기 잘 버리고 있나요

-프로그램의 첫 도입에서 진행자들이 탄소 중립 비전 선언 1주년임을 제시하고 본 코너로 들어감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자연스러운 몰입을 이끌었다.

코너가 시작되고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많은 쓰레기가 무분별한 장소에

방치된 모습은 시청자가 약간의 긴장감을 선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 이후 유색 페트병의 재활용 불가함,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상품을 내보이며 유용한 정보전달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고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하였다고 발언하는 시민 인터뷰는 시청자들 스스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수거 실천 의지를 갖게 하는 효과적인 장치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캔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개당 20원씩 적립되어 향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적립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은 각 개인과 더불어 정책적 방안이 뒷받침될 때 극대화됨을 시사하였다고 생각된다.

□ 최정욱 위원

특집 다큐멘터리 <마한>

-영산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마한 진실의 재구성, 제작, 영상, 편집 모두 너무 훌륭했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개한 구성 역시 광주MBC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후반기에 일본 요시노 가리 역사공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웅관이 마한 것과 너무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두 문화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좋았겠다는 것과 나아가 해외 다른 나라와 마한의 교류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면 더 훌륭한 구성 전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 매우 유익하고 짜임새 있는 수준 높은 방송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전두환 사망이 남긴 것

-전두환이 사망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전두환의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행, 사죄 없이 떠난 무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자료, 진행, 결론 모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옥에 티를 말한다면 첫째, 타이틀에 전두환에 관한 내용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둘째, 윤근수 진행자가 김철원 기자와 이야기하는 중에 감정이 북받쳐서 자세가 삐딱해지는 것과 목소리 어투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한문철 위원

<오매 전라도> 홍도에 핀 열기 꽃 불불락 선상낚시(12. 20.)

-홍도 바다가 주는 풍성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선상 낚시는 한 겨울 추위도 잊게 해준 채 화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낚싯대를 타고 줄줄이 올라오는 불불락은 보고 있자니, 마치 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강태공들이 함박웃음과 함께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면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다.

붉은빛의 섬 홍도, 싱싱한 겨울 바다의 맛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불불락으로 임실,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강태공들이 홍도 앞바다에 모여들었다.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자 서둘러 장비를 꾸려 낚싯줄을 내리자마자 씨알 굵은 불불락이 대어섯 마리씩 주렁주렁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불불락이 줄줄이 올라오는 일명 줄 타는 맛을 간접적으로 느꼈지만, 홍도 선상낚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 한 번은 직접 가야 할 것 같다. 선상낚시의 포인트의 중요성을 간단한 말로 쉽게 설명하는 선장님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외활동이 줄어 쌓은 스트레스가 탁 트인 바다에서 줄줄이 올라오는 불불락을 보면서 잠시나마 실내 활동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고, 강태공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촬영한 스태프들의 고생이 많겠지만, 이렇게 생생함을 전달해 주고, 시청자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획이 많았으면 한다.